

최종편집 : 2021-10-19 11:14 (화)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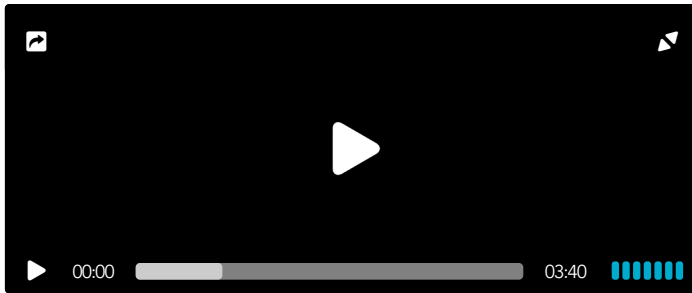
홈 > 불교

“수자타의 정성으로”...순례길 돕는 재가불자들

박준상 기자 | 입력 2021.10.08 13:27 | 수정 2021.10.09 07:29 | 댓글 0



사부대중 참여 늘어난 '상월선원 만행결사 천리순례 공양주 보살 등 자원봉사자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일정이 중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순례단의 원만한 행선에 다양한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유미죽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 자원 봉사자들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고된 여정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순례단을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하정수(어머니, 우바이) / 박선민(딸, 우바이)

최신뉴스

- 사회 | 서울시, '따릉이' 내년 예산 제로...박완주 의원 "정...
- 정치 | 靑, 서훈 주재 NSC 상임위 개최...북한 발사체 대...
- 전국네트워크 | [코로나19] 부산 학교서 신규 집단감염.....
- 사회 |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D-1...서울 도심 충돌 가능성
- 경제 |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73명, 이틀째 1천명대...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영취산 그대로가 법신 부처"
- 2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前 제주시 국장 '상습성 인장'..."
- 3 노인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능한 늦게 가는 구조 만들
- 4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경 제권 추진 박차
- 5 삼보사찰 천리순례, 18일 대 장정 마침표...통도사에서 회

기자

18박 19일 423Km 순례길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사부대중.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좇아 길을 나선 이들은 함께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보태지자 저마다의 사연을 조금씩 꺼냅니다.

갑작스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하정수씨는 혹여나 자신의 건강문제로 순례에 폐를 끼치진 않을까 고민했지만 딸이 용기를 채워줬습니다.

<하정수(어머니, 우바이) / 박선민(딸, 우바이)>

"56년 동안 길이라는 건 내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길이 내가 머물 수도 있는 곳이고 이 길에서 내가 가슴에 무언가를 담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정말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은 굉장히 힘들고 걷고 지치고 힘든데, 왜 가슴은 더 편안해지는지."

출가 수행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몸이 힘든 건 물론, 씻고 자는 것까지 여간 불편할 법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정수(엄마, 우바이) / 박선민(딸, 우바이)>

"저희끼리 그래요. 좀 전에 제가 '화장실에 휴지 달려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진짜 너무 사소한 것에 감동한다고. 하하하.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세옥 씨는 지난해 순례에 참가했던 남편 윤재웅 동국대 교수의 권유에 하던 일을 접어두고 순례길에 동행했습니다.

<이세옥(아내, 우바이) / 윤재웅(남편, 우바새)>

"(남편이) '너무 좋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여기서 하는 게 걷고, 먹고, 자고, 이거 외엔 없잖아요. 책도 볼 수 없고 너무 단순하게 이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을 최대한으로 즐겨보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내일은 어떤 느낌이 올까. 그런 설레임을 갖고 제가 자요."

직접 함께 걷진 못하지만, 순례자들이 잠시 머무는 자리에는 늘 마음으로 함께 걷는 불심 깊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의 고행으로 지쳐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유미죽을 공양했던 그야말로 오늘날의 '수자타'입니다.

<허금순 / 실상사 공양주 보살>

"(오늘 100인분 준비하셨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안 힘들었어요. 재밌거든요. 하하하하. 재밌었어요. 힘 안들어요."

<자용스님 / 화엄사 대중공양 지원>

"공양이라도 작은 마음을 전하고요. 큰스님들, 그리고 불교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꼭 한 번 참석을 해서 끝까지 함께 걸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박하고 올곧은 정진의 모습으로 불자들에게 환희심을 안겨주고 있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이제 해인사에 이르며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촬영/편집 - 남창오 기자

6 경북 16개 사군 '인구감소지역' 지정...경북도 '지방소멸'



7 오세훈, 전임 사장 추진사업 일제 점검...관련 단체 반발



8 [코로나19]부산 중학교 집단 감염 등 40명 확진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이'

전영신의 '사상'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NEW

이현규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이세옥(아내, 우바이) / 윤재웅(남편, 우바새)



허금순 (실상사 공양주 보살, 입석보살)



자용스님(화엄사 대중공양 지원, 평창 극락사 주지)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산만안본뉴스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벽을 허무는 큰 울림”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배재수의 크로키] ‘위드 코로나’와 남산의 가을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뉴스파노라마 한글날특집] 김무봉 명예교수 "첫 한글...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벽을 허무는 큰 울림”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서울시, '따릉이' 내년 예산
제로...박완주 의원 "정치적



靑, 서훈 주재 NSC 상임위
개최...북한 발사체 대응 대



[코로나19] 부산 학교서 신
규 집단감염...2주간 거리두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D-
1...서울 도심 총돌 가능성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
73명, 이틀째 1천명대...접



검찰, 성남시청 3번째 압수
수색...문화재청서 대장동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운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